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9. 23(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추수 현장에서 농부들과 수확의 기쁨 함께해...**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들녘에서 벼베기 도우며 농업인들 격려	친환경농업과	
② **경북도,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찾는다** 제4차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 개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모색 베이비부머 귀향촉진, 귀농귀촌 지원 체계 재정립 방안 등 제시	미래전략기획단	
③ **경북안전기동대 풍부한 경험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앞장서** 9.19일~25일 경주 감포읍 일대 태풍 피해지역 복구작업 구슬땀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전기 안전 점검, 방바닥 미장, 도배 등 전문인력 투입	안전정책과	
④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 So(소비자) So(소:한우) 페스티벌 개최** 추석맞이 '2020 도농상생 한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 열려 9.24(목)~26일(토) 대구 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한우 최대 50% 할인 판매	축산정책과	
⑤ **'우리 야경 보러갈래?' 경북의 야경 명소 52선** 경북 야경·노을 명소 리플릿 발간, 주요 관광안내소 등 배포	관광마케팅과	
⑥ **3대문화권 대표캐릭터 '도도·방구·먹&구름' 탄생!**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신라·유교·가야 대표 캐릭터 3종 개발 완료 '3대문화권 방문의 해' 마스코트 역할... 지역 관광상품과 협업 추진	관광마케팅과	
⑦ **경북도, 통합신공항 시대 대비 환동해 발전 전략 모색!** 9.22일, 동부청사에서 경북도 동해안발전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공항+항만+철도 Tri-Port 복합물류체계 구축해 동해안시대 열어야..	동해안정책과	
⑧ **'경북도립대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힘찬 출발!**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학협력 각 분야 참여 활성화 기대 20대 청년 대학생 수요맞춤형 산학협력 모델 창출	경북도립대학교	
⑨ **경북청년기업제품,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연다** 10.31일까지 위메프, 우체국쇼핑 온라인 몰에서 최대 48% 할인 판매	청년정책관	
⑩ **경북도, 추석 명절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9.3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단속... 위반시 과태료 처분	환경정책과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추석맞이 쿠팡입점 GB런칭'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조 환 철	
			팀 장	정기수	주무관 김정숙
		연 락 처	054-880-3368		

이철우 도지사, 추수 현장에서 농부들과 수확의 기쁨 함께해...

-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들녘에서 벼베기 도우며 농업인들 격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3일 벼 수확이 한창인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들녘을 찾아 상주시장, 도의원,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베기 작업을 도우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결실을 위해 애쓴 농업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경북도의 벼 생산량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53만5천톤(9만7천ha)보다 6.3% 정도 감소한 50만3천톤(9만7천ha)로 예상된다.

현재 벼 수확은 추석 명절 판매용 조생종 햅쌀의 경우 수확완료 단계이며, 우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만생종 벼는 10월 중·하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여 11월 초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비빕밥을 함께 먹으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황금 들녘의 넉넉함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고 품질쌀 생산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도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별첨>

참고

도지사, 상주 벼베기 행사 계획

1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9. 23.(수) 10:30 ~ 13:50

○ 장　　소 :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 1리 마을회관(사벌국면 원흥1길 5)

○ 참석인원 : 30명 정도(행정 16, 의회 4, 마을주민 10)

* 주요참석자 : 도지사, 상주시장, 도의원, 시의회 의장, 농협경북지역본부장 등

○ 행사내용 : 벼 수확, 마을주민과 오찬 및 환담

2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1:20	50′	◈ **이동[도청 → 사벌국면 원흥리 1840]**	· 43km
11:20~11:30	10′	◈ **마을주민, 현장 관계자 인사**	
11:30~12:00	30′	**벼베기(콤바인) - 일품벼** *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1840번지	· 윤홍희 농가(53세)
12:00~13:00	60′	◈ **오　찬**	· 비빔밥(마을회관)
13:00~13:50	50′	◈ **이동[사벌국면 원흥리 1840 → 도청]**	· 이동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자	단 장	김 민 석	
			팀 장	김희정	주무관 권기훈
		연락처	054-880-4508		

경북도,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찾는다

- 제4차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 개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모색 -
- 베이비부머 귀향촉진, 귀농귀촌 지원 체계 재정립 방안 등 제시 -

경상북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2020 농촌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귀농귀촌의 범위확장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는 이동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과 마강래 중앙대 교수,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 등 전문가 및 현장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해 베이비부머 귀향촉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에 이르는 지원체계 정립,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정책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귀농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청년창농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북도는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조사에서 2004년부터 16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국 귀농 1만1422가구 중 18.7%인 2136가구가 경북으로 귀농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각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경북도는 이러한 부분의 개선책을 마련해 다양한 연령대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과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키포인트 세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꼽으면서, 이

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유도(경제), 지방의료의 공공성 강화(건강), 교육기관의 커뮤니티 케어기능 강화(관계) 등을 귀향촉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은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분석, 기관 간 업무 중복과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광역-기초지자체에 이르는 귀농귀촌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중인 각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전익조 경상북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은 각 지역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인에 대한 '지원' 보다는 '유치' 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경쟁적인 유치사업의 남발하기 보다는 지역 간 귀농귀촌 지원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민철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이사는 자녀교육, 의료 및 문화서비스의 충족여부도 귀농의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귀농지원의 범위 역시 이에 맞게 확장해 대상자 별 그룹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필 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살리기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귀농 및 귀어귀촌지원센터의 통합과 기능강화, 귀농귀촌자에 대한 DB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시·군 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김민석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상북도는 누구나 살고 싶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더 많은 분들이 경북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2020년 제4차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개최 계획

- 귀농귀촌의 범위 확장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정비 방안 -

◆ 경북형 귀농·귀촌·귀어·귀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과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포럼 개요

○ 일　　시 : 2020년 9월 23일 15:00 ~ 17:00

○ 장　　소 : 경북도청 화랑실(254호)

○ 참 석 자 : 20명 정도(귀농·귀촌·귀향 관련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주제발표 : 베이비부머의 귀향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 정비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지원체계 정비
- 지정토론 : 경북형 귀농·귀촌·귀어·귀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과 전략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	3′	○ **개회**	사회 : 김지훈(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
15:03~15:13	10′	○ **인사말 및 포럼 소개**	**이동필**(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15:13~15:15	2′	○ **기념촬영**	전 참석자
15:20~15:40	20′	○ **주제 발표1** - **베이비부머의 귀향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마강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5:40~16:00	20′	○ **주제 발표2** -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지원체계 정비**	**이소영**(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장)
16:05~16:55	50′	○ **종합 토론** - **경북형 귀농·귀촌·귀어·귀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진행자** **이동필**(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토론자** **유원상**(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유정근**(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이철우**(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전익조**(경상북도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정민철**(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이사) **권혁범**(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김휘승**(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처장)
16:55~16:58	3′	○ **마무리 말씀**	**이동필**(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16:58~17:00	2′	○ **폐회**	**김지훈**(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서 한 교	
			팀 장	전 종 헌	주무관 김 성 철
		연 락 처	054-880-2321		

경북안전기동대 풍부한 경험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앞장서

- 9.19일~25일 경주 감포읍 일대 태풍 피해지역 복구작업 구슬땀 -

-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전기 안전 점검, 방바닥 미장, 도배 등 전문인력 투입 -

경상북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 지난 19일부터 경상북도안전기동대(대장 류재용)을 투입해 연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안전기동대는 25일까지 총인원 140명을 투입해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대본리 일대 피해가구 26세대, 상가1곳을 지원, 추석 전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피해지역인 감포리 일대는 빗물과 바닷물 침수로 인해 고장난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전기 안전점검, 방바닥 미장, 벽지 도배 등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피해지역으로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재난복구 민간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묵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벌써 태풍이 지나간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다” 라며, “전문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만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예대원 위주로 투입해 하루빨리 피해복구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안전기동대는 전 대원이 응급구조 자격증 및 중장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재난대응 민간단체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대응 방역활동, 안동 산불 진화지원, 전남지역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북지역 재난발생시 언제나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축산정책과		
		작성자	과 장	이 희 주	
			팀 장	이재식	담당자 서원아
		연 락 처	054-880-3416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 So(소비자) So(소:한우) 페스티벌 개최

- 추석맞이 '2020 도농상생 한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 열려 -

- 9.24(목)~26일(토) 대구 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한우 최대 50% 할인 판매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추석명절 보내기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스타디움 태극광장에서 '2020년 도농상생 추석맞이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와 농협 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을 자제 권고에 따라 고향방문을 선물로 대신하는 분위기에 맞춰 명절선물 선호도 1위인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경북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홍보하고 도농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매되는 한우고기는 대구·경북 6개 지역축협(대구, 경주, 김천, 경산, 안동봉화, 예천)과 한우협회가 참여해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다짐육, 부산물 등을 시중가보다 최소 3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한우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한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임원단들이 모듬쌈 키트 등 경북 농산물을 함께 판매해 행사의 의미가 더욱 깊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드라이브 스루로만 운영되므로 일반 입장이 불가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한 대구·경북 도시민들이 대기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드라이브스루로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타기 등 간단한 기념품 행사와 한우 떡갈비 시식행사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24일, 25일 양일간 한우 20만원 이상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자동차극장 입장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전국한우협회 김삼주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태풍 피해로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우리 한우선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민적 한우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추석명절을 나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하고 따뜻한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구시와 함께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로 한우고기 특판 행사를 준비했다” 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과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자” 고 당부했다.

<사진별첨>

참고

「2020년 도농상생 추석맞이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소비촉진행사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오수한 경북한우 홍보** 및 **도농상생 협력 도모**

행사개요

○ 기　　간 : 2020. 9. 24(목) ~ 26(토) 3일간

- 지사님참석 : 9.26(토) 11:00~12:00

○ 장　　소 : 대구시 스타디움(태극광장)

○ 주　　최 : 경상북도, 대구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　　관 :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 주요행사

-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 한우고기 판매(키오스크 및 현금부스 운영)
- 경북 농산물꾸러미 판매(경북한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운영)
- 다양한 경품행사 및 한우요리 시식행사
-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한밤의 자동차극장

시간계획(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본 행사	10:00 ~ 18:00	480′	◦ 한우고기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11:00~12:00	60′	* 한우판매행사, 행사장 투어 등	*지사님, 시장님 참여
부대행사	19:00~21:00	120′	◦ 자동차극장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 성 자	과 장	송 호 준	
			팀 장	손삼호	주무관 윤혜림
		연 락 처	054-880-3207		

‘우리 야경 보러갈래?’ 경북의 야경 명소 52선

- 경북 야경·노을 명소 리플릿 발간, 주요 관광안내소 등 배포 -

경상북도는 시군을 대표하는 야경 및 노을 명소와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우리 야경 보러갈래?’ 경북 최고의 야경 52를 발간했다.

야간관광은 관광지에 형형색색의 화려한 조명을 밝혀 주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은 낮 시간을 피해 여행시간대를 분산시키고, 밀폐된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즐길 수 있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고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에도 멋진 야경과 노을이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다.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 경관조명이 화려한 곳,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수, 바다와 산·도시·문화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빛의 향연, 계절마다 다른 일몰과 야경 등 23개 각 시군별 야경명소 52곳과 14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리플릿에 담았다.

동해안권, 북부권, 중서부권, 대구근교권 4개 권역별로 분류, 야경·노을 명소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동해안권에는 경주 동궁과 월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영덕 죽도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축산항, 울진 왕피천 은어다리, 울릉 천부일몰전망대와 천부항 등 13곳을,

△북부권에는 안동 월영교, 영주 삼판서고택, 문경 오미자테마터널, 예천 예천교 및 한천음악분수, 영양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봉화 축서사

노을 등 12곳을,

△중서부권에는 김천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상주 경천섬, 구미 갈뫼루에서 본 시가지, 영천 보현산 천문대, 의성 조문국 사적지 노을, 청송 소헌공원 등 14곳을,

△대구근교권에는 군위 화산마을, 경산 갓바위, 칠곡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청도 와인터널,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성주 성주읍성 등 13곳을 담았다.

또한 경주 신라달빛기행, 안동문화재야행, 문경달빛사랑여행, 고령 고분에 걸린 달빛소리 등 올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야간관광 프로그램 14개를 소개했다.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달밤트레킹, 밤하늘 감상, 백등체험, 인문학콘서트, 미션체험,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및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 첨성대, 안동시의 달빛투어 '달그락', 월영교 및 문화재(월영야행), 영양군의 반딧불이천문대(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등 총 5곳이 선정된 바 있다.

경북도는 리플릿을 도내 주요 관광안내소 및 관광호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에 배포하고, e-book 형태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에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야간 관광지가 많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리플릿에 실린 야경 및 노을 명소에 많이 찾아오셔서 낮보다 아름다운 경북의 야경 매력에 푹 빠져 보시고, 경북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작성자	과 장	서 태 원	
			담 당	이종익	주무관 신미지
		연락처	054-880-3186		

3대문화권 대표캐릭터 '도도·방구·먹&구름' 탄생!

-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신라·유교·가야 대표 캐릭터 3종 개발 완료 -

- '3대문화권 방문의 해' 마스코트 역할... 지역 관광상품과 협업 추진 -

경상북도는 3대문화권(신라, 가야, 유교)을 대표하는 '도도(신라), 방구(가야), 먹&구름(유교)' 캐릭터 3종을 선보였다.

3대문화권 대표 캐릭터 개발은 경북 전역에 분포한 3대문화권 인프라 조기 붐업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각 문화권을 대표하는 각 캐릭터들을 개발하고 '토커프렌즈(TALKERFRIENDS)'라는 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에 해당 문화권만의 개성을 살리면서 문화권 연계 콜라보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토커프렌즈(TALKERFRIENDS) : 3대문화권-신라, 가야, 유교-를 대표하는 캐릭터 라인업, 각자 사연과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라는 뜻

앞으로 3대문화권의 대표 캐릭터 '도도, 방구, 먹&구름'은 '2021 3대문화권 방문의 해' 마스코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 문화권 사업장의 개별 홍보는 물론 지역연계형 관광상품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활발하게 3대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의 고유문화인 '신라, 가야, 유교'의 역사·문화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등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자원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은 23개 시군, 43개 지구로 계획되었으며, 현재는 35개 지구가 완료되어 내년 3대문화권 방문의 해를

끝으로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 2010년 사업 시작부터 관광 메가프로젝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져올 기대감과 운영관리 한계에 따른 우려 섞인 시선이 공존해 왔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는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3대문화권 사업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3대문화권을 대표할 캐릭터 3종은 각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획된 만큼 앞으로 3대문화권 사업 홍보마케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지역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3대문화권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3대 문화권 대표 캐릭터 3종 설명

① 신라 '도도'– 도망간 도마뱀

도도는 용의 분장을 한 하얀 도마뱀. 자신은 용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신라문화 덕후이다. 용이 되기 위해 도마뱀 무리에서 도망쳐 용의 뿔, 신라 화랑 복장의 코스튬으로 장만한 나뭇잎 두 장, 문무왕 설화에 전해지는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만파식적을 자체 제작하여 지니고 다닌다. 사계절 내내 용 모양 점프슈트를 입고 다니는 도도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용이 되겠다는 꿋꿋한 의지가 있다.

도도는 왜 그토록 용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② 유교 '먹&구름'– 벼루 먹이와 강아지 구름이

먹이와 구름이의 만남은 심상치 않았다. 집에서 말썽만 피우던 강아지 구름이는 예절교육을 받기 위해 서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서원에서도 장난만 치던 구름이는 어느날 우연히 발견한 벼루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이 벼루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을 걸어오는 이 신비한 벼루는 훗날 구름이를 지도하는 비밀 과외선생님 먹이다.

먹이와 구름이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③ 가야 '방구'– 추방당한 거북이

방구는 천년 넘게 살아 온 거북이. 건강이 악화된 용왕은 자라보다 먼저 '거북'에게 토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했지만, 평소 귀가 어두웠던 거북이는 토끼를 토기로 잘못 듣고, 토끼 대신 가야토기를 가지고 왔고, 화가 단단히 난 용왕은 이런 실수를 한 거북이를 추방시켜 버린다. 그때 '추방된 거북'이라는 이름인 '방구(놓을 방, 거북 구)'가 되었다. 용궁전 기록에는 거북(방구)은 삭제되었고, 자라의 이야기가 남았다.

토기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으며, 아직도 자신을 추방한 용왕을 미워해 용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 가야의 땅과 토기들을 조사하고 있다.

방구는 정말 토끼를 토기로 잘못 들은 것일까?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안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이 원 철	
			팀 장	이상열	주무관 김남엽
		연 락 처	054-880-7612		

경북도, 통합신공항 시대 대비 환동해 발전 전략 모색 !

- 9.22일, 동부청사에서 경북도 동해안발전분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 공항+항만+철도 Tri-Port 복합물류체계 구축해 동해안시대 열어야.. -

경상북도는 22일 동부청사에서 산업계 대표, 대학교수, 연구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분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과를 구성하여 경북도정의 신규 시책 개발과 미래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해안발전분과(위원장 : 도형기 교수)는 동해안정책, 에너지, 원자력, 해양수산, 항만·물류, 해양레저관광,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보고, 2030 지속가능한 동해안 발전방향, 정책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동해안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동해안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동해안의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을 위해 △에너지·해양자원의 성장 동력화, △글로벌 新관광허브 구축,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이날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한동대 도형기 교수는 “통합신공항은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공항+항만+철도 Tri-Port(트라이포트)복합물

류체계 구축 실현을 통해 동해안시대를 열어 세계를 향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면서, “이를 현재 변경 추진중인 2030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 동해안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청정바다,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체류형 해양힐링 공간, 537㎞ 동해안에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체험형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 통합신공항시대에 경북 동해안이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

제3회 동해안발전분과위원회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 9.22.(화) 11:00

❍ 장　　소 : 동부청사 (1층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정도

- 동해안발전분과위원, 환동해지역본부장, 해양수산국장 및 과장 등

❍ 내　　용

-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사업 설명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 및 지속가능한 동해안 발전 방향(주제발표)

시간계획

구분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고
9.22 (화)	10:40~11:00	’20	□ 등록안내	
	11:00~11:03	’03	□ 참석자 소개	
	11:03~11:07	’04	□ 인사말씀	도형기위원장
	11:07~11:15	’08	□ **환동해지역본부 주요업무 브리핑**	김남일본부장 (or 해양수산국장)
	11:15~11:35	’20	□ 주제발표(당면 현안사항)	대경연(설홍수박사)
	11:45~12:25	’40	□ 정책자문 및 자유토론	주재 : 위원장
	12:25~12:30	’05	□ 마무리 인사	위원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작성자	단 장	심 태 은	
			팀 장	남복순	주무관 고태욱
		연락처	054-650-0171		

‘경북도립대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힘찬 출발!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학협력 각 분야 참여 활성화 기대 -
- 20대 청년 대학생 수요맞춤형 산학협력 모델 창출 -

경북도립대는 23일 청남교육관 청남홀에서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학생참여단 25명을 비롯해 산학협력 사업추진 위원 및 교직원들이 참석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학생 참여단 구성은 전체학과 대상으로 각 학과별 2명씩 구성되었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북도립대 산학협력 학생참여단’은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산학협력의 각 분야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자체 정책수립 아이디어 제안 등 대학생들의 산학협력 분야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또한, 경북도립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혁신사업 프로그램과 대학 내의 각종 교육과정 운영 등에 20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산학협력 분야에 적극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령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북도립대학교는 교육부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과 산학협력, 지역사회 기여가 매우 높아졌

다” 라며, “산학협력 학생참여단이 중심이 되어 산학협력을 한층 강화 시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참고

- 경북도립대 혁신지원사업 -

『2020년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발대식

❖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사업 분야별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
(지자체 + 대학 + 산업체가 참여하는 캡스톤디자인 등 수행 연계 추진)

행사개요

❍ 일　　시 : 2020. 9. 23(수) 11:00 ~ 12:00

❍ 장　　소 : 본교 청남교육관 청남홀(2층)

❍ 대　　상 : 40명정도(재학생 25명, 관계자 및 교직원 15명)

· 총장, 산학협력단장,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위원 사업관계자 등

❍ 내　　용 :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사업설명 등

❍ 주　　관 :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50	20′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11:00~11:05	5′	○ 참석자 소개 (외부위원)	사 회 자
11:05~11:10	5′	○ **인사말씀**	**총　　장**
11:10~11:25	15′	○ 위촉장 수여	학생참여단 25명
11:25~11:30	5′	○ 학생 참여단 결의문 낭독	학생참여단 25명
11:30~11:35	5′	○ 사업설명	산학협력중점교수
11:35~11:40	5′	○ 발대식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1:40~		○ 행사 종료	

2020년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추진계획(안)

◈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사업 분야별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

추진배경

○ 대학 구성원의 한 축인 20대 청년 대학생 특유의 도전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산학협력사업의 각 분야 참여 활성화

○ 20대 수요맞춤형 산학협력모델 창출
* 수요자 측면의 **산학협력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보완방안 제시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참여방안 모색
* 지자체 + 대학 + 산업체가 참여하는 캡스톤디자인 등 수행 연계 추진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0. 6 ~ 2021. 2월
❍ **(사업예산)** 5백만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비 100%)
❍ **(수행기관)** 경북도립대 산학협력단/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사업내용)** 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프로그램사업 참여 + 전통시장살리기, 학교 내 축제행사 등 참여 + 지역행사 참여, 개선방안 조사 및 제안

'산학협력 학생참여단'	산학협력 분야	활 동 사 항
	대학 내 협력	-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콘텐츠 제안, 선호도 조사 등 교육성과 검증의 TEST -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수요조사 및 취·창업프로그램 등 보완 조사
	산업체 협력	- 기업의 기술 및 제품개발, 서비스 개선, 신제품의 TEST-BED 수행 - 시장에서의 고객평가 사전 역할 수행
	지역사회 협력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주차문제, 생활쓰레기, 흡연구역, 버스노선 개선 등
	지자체 협력	- 지자체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업아이디어 제안 -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문화유산 활용, 도시재생사업, 지역축제 개선 등

향후일정

❍ 발대식('20.9월) → 사업추진('20.6~'21.2월) → 성과보고회('20.12월)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청년정책관		
		작성자	과 장	박 시 균	
			팀 장	이배일	주무관	백종성
		연 락 처	054-880-2764		

경북청년기업제품,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연다

- 10.31일까지 위메프, 우체국쇼핑 온라인 몰에서 최대 48% 할인 판매 -

경상북도에서는 추석을 맞아 경북청년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위메프, 우체국쇼핑 온라인 몰에서 ‘2020 추석맞이 청년기업제품 특별할인판매 기획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 행사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오프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청년 창업기업 제품을 선별해 판로개척과 유통망 확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위메프에는 37개 기업, 우체국쇼핑은 20개 청년기업이 참여해 사과, 김, 빵, 곰탕, 막창, 커피, 의자, 의류 등 식품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판매제품을 기존 할인가에서 추가 할인해 최대 48%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위메프(https://front.wemakeprice.com)는 10월 31일까지, 우체국쇼핑(https://mall.epost.go.kr)은 10월 4일까지 진행하며, 대다수 제품은 무료배송이 가능하며 일부 상품은 1+1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추석을 맞아 지자체 최초로 ‘롯데ON’ 온라인쇼핑몰 시장을 개척해 청년기업제품을 10월에 추가로 모집해 기획전을 준비할 계획이며, TV ‘공영홈쇼핑’에서는 10월 넷째주 ㈜J식품의 구운계란, 11월에는 ㈜프레쉬벨의 과채음료, 유아음료가 방영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 방송판매 및 홍보 마케팅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시균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은 “청년 창업가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특판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실용적인 청년기업 제품의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청년창업제품판로개척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 판매 기획전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급감 등 청년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업제품 온라인 특판 기획전 행사 개최

1 위메프

- 행사기간 : 2020. 9. 22.(화) ~ 10. 31.(일)
- 행사내용 : 최대 48% 할인(기존할인가 포함)
  - 일 1천매씩 제한하여 발행
  - 1만5천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
- 주요상품 : 과일선물세트, 간편식 등
- 상세상품 : 감미인 청도 곶감선물세트 / 쭈꾸미 등
- 구매방법
  - 온라인 : 위메프 홈페이지 (http://www.wemakeprice.com)
  - 모바일 : 위메프 어플리케이션

※ 참조링크 : https://front.wemakeprice.com/promotion/3774

2 우체국쇼핑

- 행사기간 : 2020. 9. 17.(목) ~ 10. 4.(일)
- 행사내용 : 최대 37% 할인(기존할인가 포함)
- 주요상품 : 과일선물세트, 간편식 등
- 상세상품 : 사과즙, 사골육수, 무말랭이 등
- 구매방법
  - 온라인 :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 (http://www.mall.epost.com)
  - 모바일 : 우체국 쇼핑 어플리케이션

※ 참조링크 : https://mall.epost.go.kr/fo/display/plnbefDspyNewView.do?plnbefId=10007025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9. 23(수)】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권 경 수	
			팀 장	강병정	담당자	최지환
		연 락 처	054-880-3539		

경북도, 추석 명절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 9.3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단속... 위반시 과태료 처분 -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다한 포장의 선물세트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 중심으로 30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주류 등 선물세트와 1차 식품(종합제품) 이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간이측정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검사결과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코로나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알차고 실용적인 제품을 선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사진없음>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추석맞이 쿠팡입점 GB런칭’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 24일(목) 오후 2시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쿠팡입점 GB런칭’ 행사에 참석한다.